

□ 개요

- 일시 및 장소 : 2019. 4. 24(수) 13:30, 플립사이드 4-1 회의실
- 참석자 : 석유화학업종 기후변화대책반원 등 25명
- 프로그램

시간	내용	비고
13:30~13:40	개회 및 안내(비상대피, 공정거래)	
13:40~14:40	국내 배출권거래제 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	에코앰파트너스 고순현 상무
14:40~15:00	RE100과 석유화학산업	한국석유화학협회 김대웅 팀장
15:00~15:10	Coffee Break	
15:10~16:00	플레이스택의 배출량 산정 및 MP 작성 대응	참석자 전원
16:00	정리 및 폐회	

□ 주요내용

1. 국내 배출권거래제 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

- 신기후체제와 국제 탄소시장 동향
  - 파리협약 이후 전세계 모든 기후변화 당사국에 감축의무가 부여됨에 따라, 국제 탄소시장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
  - 현재 전세계 45개국에서 다양한 형태(배출권거래제, 탄소세 등)로 탄소 가격제 운영 중(시범사업 포함)
  - 2℃ 시나리오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전세계 배출권 가격이 톤당 50유로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(2019.04 현재, 국내 배출권 가격 톤당 약 22유로)
  - 석유화학업종의 경우 중국, 인도 등 아시아시장의 탄소가격제 전면시행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 대비 필요

## ○ 국내 배출권거래제 동향

- 배출권거래제 1기 운영결과, 환경부에서는 효과적인 거래제 운영으로 인하여 배출권이 모자라는 기업 없이 감축이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
- 이는 업황이 안좋은 산업에서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해 생긴 잉여배출권이 시장의 부족물량을 채운 것으로 배출권거래제가 본래 목적대로 운영된 결과가 아님
- 실제 활발한 감축활동으로 인하여 배출권 수급에 여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장내거래가 활발해야 했을 것임
- 감축활동을 통해 배출권을 확보했다면 현금화 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의 기본적인 이치이기 때문

## ○ 기업 대응현황 : 설문조사 결과

- 긍정적 측면 : 배출량감소(47%), 기업이미지 제고(46%), 내부혁신(37%) 등
- 부정적 측면 : 행정부담(94%), 운영비용 증가(79%), 기업경쟁력 악화(58%) 등
- 배출권거래제 대응 : 담당자 수준대응(52%), 전사 차원대응(28%)
- 배출권 목표 달성 방법 : 배출권 구입을 통한 목표달성(69%), 내부감축사업(20%), 생산량 감소(16%)

## 2. RE100과 석유화학산업

### ○ 국내 석유화학기업의 RE100 참여는 소극적이나 점차 확대 예상

- 국내 에너지다소비 업종인 석유화학, 철강 등의 RE100 참여 전무한 상황으로, 국내 석유화학기업의 RE100 전환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외부 구매를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가 합리적인 대안
- 향후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따라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에 들어가는 석유화학제품의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

## ○ 제언

- RE100 제품수요가 증가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어 온실가스 감축의 무 준수를 위한 비용효과적인 방안 마련 필요(배출권구매, 에너지절감 기술 개발 등)
- 에너지 사업 분야,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 장기적인 사업 재편 필요
  - 최근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해외 프로젝트 개발 활발(OCI, 한화큐셀, 한국전력 등)
  - 세계적인 연비기준과 온실가스 배출규제로 인해 제조업에서 소재 경량화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만큼, 고부가가치 제품 사업 재편 및 확대가 이루어져야 함

## □ 회의 사진

